

徐陵 시가의 宮體詩의 성격에 관한 연구*

권혁석**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徐陵의 시가 |
| II. 徐陵의 생애와 문학관 | IV. 결론 |

I. 문제의 제기

1. 徐陵의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

남조 梁나라에서부터 陳나라 때까지 살았던 徐陵은 《玉臺新詠》의 편찬자로서 宮體詩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서릉의 시가 고찰을 통해 궁체시와의 관계 및 서릉과 서릉시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서릉에 대한 고금의 평가를 보기로 한다. 먼저 唐나라 초기에 저술된 史書에서의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梁 大同 이후 문학의 바른 도리는 인물되어 점차 경전의 범칙과는 어긋나면서 다투어 새롭고 교묘한 것을 추구하였다. 簡文帝, 湘東王이 분수에 넘는 방탕함의 길을 열었고, 徐陵과 庾信은 길을 나눠 재능을 뽐내었는데,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지원을 받았음.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중국어전공 교수

그들 작품의 의미는 알면서도 번다하였고, 작품의 문체는 숨은 듯 화려했으며, 어휘는 가볍고 괴상한 것을 숭상했고, 감정은 대부분 슬픔과 그리움이었다. 延陵으로 물러났던 뫼나라 季札의 음악처럼 정사에는 소극적인 격조로서, 대부분 망국의 음악이었다.)¹⁾

이는 유가의 시교설에 기초한 복고적 관점으로 현대에까지 이어져 온다. 王瑤는 〈徐庾與駢體〉에서 ‘서릉의 시는 단지 궁체시뿐’이다 라고 여기면서 “서릉의 시는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궁체’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²⁾라고 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변태적 성심리 욕구를 묘사했다고 할 정도로 혹평하는가 하면³⁾ 서릉을 궁체시의 대표 작가,⁴⁾ 또는 전형적인 궁체시인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宮體詩에 대한 기존의 관점

궁체시라는 명칭은 전원시, 현언시, 자연시, 영사시 등의 역사 속에 반

- 1) 《隋書》卷76(《文學傳敘》), 《二十五史》卷5, 上海古籍出版社, 1986, 207쪽 (총 3455쪽): “梁自大同之後, 雅道淪缺, 漸乖典則, 爭馳新巧, 簡文湘東, 啓其淫放, 徐陵庾信, 分路揚鑿, 其意淺而繁, 其文匿而彩, 詞尚輕險, 情多哀思, 格以延陵之聽, 蓋亦亡國之音乎!”
- 2) 王瑤, 《中古文學史論》(《中古文學風貌》), 長安出版社, 1982, 148-149쪽.
- 3)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第1冊), 中國圖書刊行社, 1986, 279쪽: “蕭綱의 적극적인 창도 아래 당시의 궁정 문인 庾肩吾, 庾信, 徐摛, 徐陵 등은 그의 뜻을 받들어 궁체시풍을 힘껏 선양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여인의 옷깃, 자수 신발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개, 자리, 이불, 휘장 등의 침구를 묘사하면서 그들의 변태적 성심리 욕구를 묘사했다.”
- 4) 江承華, 〈略論徐陵《與李那書》的文學思想〉,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1998, 43쪽: “서릉은 바로 이러한 궁체시를 고취시킨 사람이자 그 대표시인이었다. …… 현존하는 서릉의 작품은 40수의 시와 악부가 있는데, 대부분이 궁체시의 범주에 속한다.”
- 5) 袁世碩 主編, 《中國古代文學史》上冊, 高等教育出版社, 2018, ‘蕭綱과 宮體詩’: “서릉과 유신은 젊은 나이에 소강 주변에서 문학 시종을 담당했으며, 또한 전형적인 궁체시인이었다.”

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체의 이름이 아니라, 특정 역사 시기에 출현했던 시가에 한정된 명칭임을 전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궁체시에 대해 그 유래 및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시인, 그리고 궁체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궁체시의 유래에 대한 사서의 기록 중 비교적 원시 자료로 볼 수 있는 《梁書·梁簡文帝紀》⁶⁾를 보기로 한다.

(소강은) 시를 짓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자신의 글 서문에 이르기를 ‘7세 때부터 시벽이 있었는데 커서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문장이 가볍고 화려한 것이 흠이었는데, 당시 ‘궁체’라고 했다.⁷⁾

이 자료를 통해 볼 때 궁체는 시 짓기를 좋아했던 梁나라 簡文帝 蕭綱이 태자였을 때부터 지었던 가볍고 화려했던 시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소강과 같이 궁체시 창작을 함께 했던 문인들은 누구였던가. 《梁書》의 〈徐摛傳〉을 보기로 한다.

(徐陵의 부친 徐摛는) 문장을 지으면 곧잘 새로운 변화된 문장을 지었는데, 옛날 체제에 구속되지 아니했다. …… 고조가 周舍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문학과 행실을 겸비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와 주게, 그를 晉安王[蕭綱]과 함께 지내게 하고 싶네.’라고 하니, 주사가 대답하기를 ‘신의 외사촌 동생 서리가 있는데 몸매는 왜소해서 옷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합당할 듯 합니다.’라고 했다. …… 서리를 進安왕의 侍讀으로 삼았다. …… 大通 초에 進安왕이 북벌을 총괄하면서 서리를 甯蠻府의 長史를 겸하

- 6) 黃穎, 《徐陵研究》,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140쪽: “《梁書》는 姚察과 姚思廉 부자가 대를 이어 완성한 사서인데, 姚察은 陳나라 조정에 출입하며, 徐陵, 江總 등과 왕래가 매우 친밀하였으며, 일찍이 《梁史》 편찬의 명을 받았다. 姚思廉은 부친 姚察의 초고에 기초하여 《梁書》의 편찬을 완성하였는데, 책에서 인용한 자료와 역사 사건에 대한 관점은 모두 아버지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梁書》를 현존하는 비교적 원시적인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 7) 《梁書》 卷4, 14쪽(총 2032쪽): “雅好題詩, 其序云, ‘余七歲有詩癖, 長而不倦.’ 然傷於輕豔, 當時號曰‘宮體.’”

게 하여 군정에 참여케 했는데, 敎, 命, 軍書가 대부분 서리에게서 나왔다. 진안왕이 궁중으로 들어와 태자가 되었을 때 家令으로 관직을 옮겼으며, 管記 업무를 관장했다. 서리의 문체는 이미 남달라서 동궁에서 모두 본받았다. 궁체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⁸⁾

이 자료에 의하면 서리가 소강을 따라 동궁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궁체’라는 문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⁹⁾ 아울러 서리의 문체의 특징을 볼 때 궁체는 옛날 체제에서 새롭게 변화를 준[新變] 남달랐던 새로운 시체[新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궁체는 서리와 소강이 그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隋, 唐 시기에 저술된 남조 유티주의 사조에 대한 반성을 기조로 한 남조의 사서는 궁체시에 대한 성격 및 평가를 다음과 같이 부정적 관점 일색의 경향을 보이는데, 《隋書》(經籍志·集部序)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梁 簡文帝가 동궁에 있을 때 또한 작품 짓기를 좋아했는데, 청신한 가사와 세련된 형식은 잠자리와 잔치자리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아름답게 꾸민

- 8) 《梁書》卷31, 50쪽(총 2068쪽): “(徐摛)屬文好爲新變, 不拘舊體. …… 高祖謂周舍曰, ‘爲我求一人, 文學俱長兼有行者, 欲令與晉安遊處.’ …… 以摛爲侍讀. …… 大通初, 王總戎北伐, 以摛兼甯蠻府長史, 參贊戎政, 敎命軍書, 多自摛出. 王入爲皇太子, 轉家令, 兼掌管記. 摛文體既別, 春坊盡學之, ‘宮體’之號, 自斯而起.”
- 9) 徐摛는 39세 때 7세였던 蕭綱의 侍讀으로서 함께 한 이후 大寶 2년(551) 죽을 때까지 거의 42년을 함께 했다. 서리의 몇 수 안 되는 현존시를 통해 본다면 두 사람은 시작 활동 역시 긴밀히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서리의 현존시는 〈胡無人行〉, 〈詠筆詩〉, 〈詠橋詩〉, 〈壞橋詩〉, 〈賦得簾塵詩〉 등 5수뿐이며, 蕭綱의 〈和徐錄事見內人作臥具詩〉와 庾肩吾의 〈和徐主簿望月詩〉를 통해 徐摛 역시 〈臥具詩〉와 〈望月詩〉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詠筆詩〉는 소강의 〈詠筆格〉, 〈詠橋詩〉와 〈壞橋詩〉는 소강에게도 같은 제목이 있으며, 〈賦得簾塵詩〉는 소강의 〈梁塵〉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아 비록 몇 수 되지는 않지만 서리의 영물류와 영정류는 소강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은 그 생각이 규방 안에서 다할 뿐이었다. 후세에 호사가들이 서로 모방하면서 조야에 그러한 작품이 넘쳐났는데 이를 ‘궁체’라 했다. 끝없이 제멋대로 흘러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¹⁰⁾

清新한 가사와 세련된 형식, 아름다운 문장이 비록 긍정적이긴 하지만 모두 염정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궁체시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궁체시에 대한 부정적인 고대 사서의 관점은 현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몇 가지 대표적 예를 보기로 한다. 먼저 고전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현대시인 聞一多是 “궁체시는 궁정의 것이다. 또는 궁정 중심의 염정시이다. 이 어휘는 역사성을 띤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양 간문제가 태자로 있을 때의 동궁 및 진후주, 수양제, 당태종 등의 몇 궁정이 중심이 된 염정시를 말하며,” 작가들 “각자의 눈가에는 음탕함이 서려 있고”, “작가마다 마음 속에 여성의 쇠약증이 깃들어 있으며,” “일종의 위장된 부끄럼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자 노출증”이며, “오로지 혼음에 깊이 빠져 문자를 낭비하는 것에 힘쓴 궁체시는 원래 노쇠한 빈혈의 남조 궁정생활의 산물이다.”¹¹⁾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관점을 계승하여 궁체시를 色情文學¹²⁾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편협된 관점은 일시적이었으며 이후 궁체시의 참모습을 조명하기 위한 적잖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궁체시의 특징과 함의를 내용, 형식, 풍격, 문학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를 보면, 첫째 궁체시는 창작경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가치가 없으며, 둘째 풍격면에서는 영명체의 輕綺함에 기초하여 더욱 濃麗하여 淫靡함으로까지 흘렀으며, 셋째 형식면에서는 영명체를 기초로 하여

10) 《隋書》(권35), 《二十五史》(卷5), 上海古籍出版社, 1986, 131쪽(총 3379쪽): “梁簡文之在東宮, 亦好篇什, 清辭巧制, 止乎衽席之間, 雕琢蔓藻, 思極閨閣之內. 後生好事, 遞相放習, 朝野紛紛, 號爲‘宮體’. 流宕不已, 訖於喪亡.”

11) 袁千正 編, 《聞一多古典文學論著選集》, 武漢大學出版社, 1993, 225-227쪽.

12)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1984, 311-312쪽.

성물을 더욱 화려하고 세밀하게 추구하였으며, 넷째 내용면에서는 영명체보다 더욱 협착하여, 염정과 영물을 위주로 하고, 음풍농월과 경치를 애호하는 작품도 적잖다¹³⁾고 하였다. 또다른 관점은 궁체시의 외연을 확장시킨 점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궁체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색과 염정 묘사에 있다고 하기도 한다.¹⁴⁾

그리고 궁체시에 대해 비교적 깊이 연구를 진행한 歸靑은 기초자료인 《梁書》의 관점에 입각하여, 궁체시는 염정적 내용의 신변체를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 궁체시인의 염정 외의 기타 신변체 시는 궁체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¹⁵⁾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체시는 양대 후기(즉 소강이 동궁에 들어간 후)부터 초당까지 유행했으며, 소강을 대표로 하는 輕艷을 특징으로 하는 신변체의 염시”라고 정의를 내렸다.¹⁶⁾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궁체시에 대한 함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가급적 초기 자료에 근거하여 ‘(동)궁체의 시가’라고 봐야 하며, 소강이 태자가 된 이후 소강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시의 특징은 염정 위주의 내용과 전에 비해 더욱 형식미를 강구한 점을 들 수 있다. 사료상으로 본다면 ‘궁체’라는 명칭은 소강이 태자가 되었을 때인 531년 이후이며, 궁체시의 창도자는 서리와 유견오라고 할 수 있다. 서릉은 결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역시 한때 궁체 창작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궁체시의 유래만으로 본다면 기존의 서릉에 대한 주된 평가와는 달리 궁체시의 대표 시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궁체시의 내용적 특징을 흔히 艷詩라고 하는데, 이때 염시는 <옥대신영

13) 趙道衡、沈玉成, 《南北朝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1, 233-234쪽.

14) 胡大雷, 《宮體詩研究》, 商務印書館, 2004, 3쪽 참조.

15) 歸靑, 〈宮體界說辨—兼論宮體詩的類型〉,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32권 제6기, 2000, 10-13쪽.

16) 歸靑, 《南朝宮體詩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19-35쪽에서는 궁체시의 함의를 더욱 확장시켜, 궁체시는 염시적 성질, 신변의 특징, 體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서) 마지막 부분의 ‘撰錄艷歌’에서의 ‘艷歌’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염시는 예전부터 있었다. 다만 그 전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며, 梁陳 시기에는 대량적, 집중적으로 하나의 사조처럼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다. 《옥대신영》은 《大唐新語》의 말처럼¹⁷⁾ 그들의 자기 합리화[자신들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시경의 風의 정신을 계승하였고, 漢 악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시가의 순문학적 측면을 반영한 것]에 의한 산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궁체시는 소강이 태자였을 때 서리, 유견오 등과 함께 창작했던 시체로서, 형식적으로는 전대에 비해 더욱 성률을 강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전대에 비해 더욱 염정 위주로 흘렀던 시가로서, 구체적으로는 《옥대신영》에 수록된 양나라 때의 궁정문인들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서릉=궁체시인’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 역대의 평가를 떠나 그의 생애, 문학관 및 시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II. 徐陵의 생애와 문학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궁체시는 그 출발이 서리와 그 영향을 받은 소강으로부터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서릉이 궁체시의 대표 작가라는 관점이 출현하게 되었던가. 이는 아마도 궁체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소강의 명에 의해 서릉이 《옥대신영》을 편찬하게 되었다고 쓴 《大唐新語》에게 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서릉과 궁체시의 관계를 규명하려면 소강과 서릉이 함께 했던 시간을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현존하는 그의 글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의 문학관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궁체시 창작과 어떤

17) 권혁석 역, 《옥대신영》 권1, 7쪽 참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다.

앞 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서릉 및 궁체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릉의 궁체시 창작은 주로 양나라 소강(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진나라 후주)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이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서릉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¹⁸⁾ 연구를 통해 서릉의 문학활동 관련 생애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때, 제1기(507~548)는 徐陵 42세 이전으로, 徐陵이 15세에 소강의 막부에 들어갔으며, 25세 때 유신과 함께 태자 소강의 동궁학사가 되어 소강 주변에서 정사와 문학을 함께 하던 때로서, 이 때는 蕭綱의 ‘放蕩’ 문학관의 구현인 《玉臺新詠》을 편찬하는 등 그의 문학관에 적잖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기이다. 다만 이 시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531년에 소강이 태자가 되고 서릉은 동궁의 학사로 발탁되어 소강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후 서릉이 548년 복조로 사신갈 때까지 여러 차례 관직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소강은 549년 즉위하여 551년 죽었다. 핵심은 531년부터 548년 사이 서릉의 생애인데, 540년에는 上虞(지금의 浙江省 紹興)습이란 외직으로 나가 542년까지 있었으며, 544년에는 南平王 蕭恪의 行參軍으로 옮겼고, 547년에는 鎮西將軍 蕭繹의 中記室參軍을 역임하는 등¹⁹⁾ 소강과 함께 시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

이후 제2기(548~555)는 산기상시의 벼슬에 있으면서 東魏로 사신을 갔다가 북조에 억류되어 있던 시기로, 이 시기에는 궁체시 창작의 환경이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그가 지은 시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마지막 제3기(555~583)는 北齊에서 남조로 돌아온 후 梁 元帝 및 陳나라에서 벼슬하다 죽을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입북 이전에 비해 관직이 높았으며, 또한 조정의 정사에 필요한 문장을 담당하던 관계로 《刪陳公九錫文》 등 산문이 대부분이었다. 서릉의 생애만으로 볼 때 실제로 서릉은 소강과 문

18) 권혁석, 〈徐陵의 생애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9집, 2020.

19) 같은 논문, 22쪽 참조.

학 활동을 한 시기가 매우 짧았으며, 궁체시 창작을 활발하게 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소강의 문학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의 취지에 따라 《옥대신영》을 편찬하고 그 서문을 썼다는 점에서 확장된 궁체시의 영역을 통해 볼 때 궁체시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릉을 궁체시의 대표 작가로 보기는 어렵다.

사서의 기록에 나타난 그의 인격 또한 아부와 권모술수, 일신의 안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입신양명, 부귀공명 등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항상 조정과 백성을 걱정하였으며, 예에 밝았고 효도가 극진했으며, 사람을 볼 줄 알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른 강직한 주장을 펼쳤다.²⁰⁾ 이러한 그의 인격상의 신중함은 엄정 위주의 오락적 효용의 궁체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서릉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서릉은 육조시대 변문의 대가이다.²¹⁾ 육조는 변문이 가장 흥성하던 때이니 서릉은 중국의 변문사에 있어서 최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릉의 현존 작품은 궁정의 실용문인 조책문 등의 문장이 82편, 악부를 포함한 시가가 40편이 현존한다.

시가를 제외한 문장은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중의 《全陳文》의 6권~11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중 제6권에는 詔, 九錫文, 策文, 璽書 등 4종의 문체가 들어있는데, 모두가 梁陳 교체기의 정치문서이다. 제7권에는 表, 議, 啓, 書 등 4종의 문체가 실려있는데, 그중 6편의 表는 梁 元帝에게 진언하거나 자신 또는 남에게 관직을 양보하는 글로서, 모두 전형적인 정치적 문장이다. 議는 陳 高祖 사후 조정의 상복 관련 논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은 글이며, 啓는 대부분 황제나 태자에게서 선물을 하사 받고 그 감사함을 쓴 문장이다. 全陳文 7~10권까지 수록되어 있는 그의 書는 대부분 당시 중대한 정치적 사건 속에서 주요 정치 인물을 대신해서 쓴

20) 같은 논문, 8-14쪽 참조.

21) 穆克宏, 〈徐陵論〉, 《楚雄師範學院學報》 제17권 제2기, 2002, 1쪽.

시사성을 띤 작품이다. 제11권에는 移, 檄, 序, 銘, 哀策, 墓誌, 碑文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移齊檄周’의 문장은 정치적 문장이며, 기타 문장 또한 비록 당시 정치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황제를 위해 쓴 애책이나 관원을 위해 쓴 덕정비 등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행위에서 나온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玉臺新詠序〉는 정치적, 공리적 목적을 띠지 않은 순문학적인 글이다.

이상의 서풍의 산문들 중에는 비록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문학관을 피력한 글은 없지만 몇몇 산문 속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그의 문학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新變’[新聲]을 중시했다. 사서에서 “그의 문장은 자못 옛날 형식을 변화시켰으며, 아름답고 세련되고 엄밀하여 대부분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²²⁾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궁체시의 영역 확대를 위한 의도로 《옥대신영》을 편찬한 것은 물론이요, 전례를 깨고 생존 작가의 작품까지 수록하였으며, 기존의 문체의 틀을 깨고 허구적 수법으로 쓴 서문 역시 그의 이러한 신변 추구의 문학관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학관은 만년에까지 이어진다.

나는 70세로 지는 해처럼 죽을 날이 이미 가까워졌으며, 노환까지 심해졌다. …… 그러나 이미 신성이 결핍하여 완전히 옛날 음악과 같아져서 대부분 작품이 험률에 부끄러워 정작 魏文侯를 즐리게 할까 걱정이 된다.²³⁾

둘째, 문학 특히 시가의 오락적 효용을 중시했다. 이는 주로 〈옥대신영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옥대신영》에 수록한 시가들을 투호, 육박 등 오락에 비유하여 그것보다도 효용성이 더 높다고 했으며, 망우초를 대신해

22) 《陳書》 卷26, 37쪽(총 2151쪽): “其文頗變舊體, 緝裁巧密, 多有新意.”

23) 徐陵, 吳兆宜 注, 《徐孝穆集箋注》(文淵閣四庫全書), 商務印書館, 1985, 1064-866쪽: “吾七十之歲, 崦嵫已迫, 朽老之疾, 隨年而甚. …… 但既乏新聲, 全同古樂, 正恐多慙於協律, 致睡於文侯耳.”(〈答族人梁東海太守長孺書〉)

근심을 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작품들은 《春秋》 등 경전과 다르고 가공성덕 위주의 賦 문학과도 다르다고 했다.²⁴⁾

셋째, 형식미를 중시하면서도 내용의 실질을 병증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릉이 만년에 쓴 편지인 〈與李那書〉²⁵⁾에 잘 나타나 있다. 陳文帝 天嘉 2년(561. 周武帝 保定 원년에 해당)에 北周의 殷不害가 陳나라로 사신으로 올 때 李那(일명 李昶)²⁶⁾의 시문인 〈陪駕終南〉, 〈入重陽關〉, 〈荊州大乘寺〉, 〈宜陽石像碑〉 등 네 편을 가지고 왔는데, 서릉은 읽은 후 크게 칭찬하며 李那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조화로운 악기가 함께 연주되면 趙鞅²⁷⁾의 혼백을 놀라게 할 수 있고, 휘황하게 환한 꽃 같이 아름다우면 安豐侯²⁸⁾의 눈을 수시로 깜빡이게 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시가는 형식적인 측면의 조화로운 성품과 아름다운 문체를 모두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글을 보면 아름다운 형식뿐만 아니라 감동을 자아내는 내용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지는 시구는 청신하며, 뿔어낸 언어는 슬픔으로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니, 어찌 湘夫人³⁰⁾의 비파소리를 듣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겠는가? 흐느끼

24) 권혁석 역, 앞의 책, 39-63쪽 참조.

25) 徐陵, 吳兆宜 注, 앞의 책, 1064-862~864쪽.

26) 李那: 北朝의 저명한 문인 중의 한 사람으로, 李昶의 小名이다. 《周書》(卷 38)(《李昶傳》), 64쪽(총 2644쪽) 참고.

27) 趙鞅: 즉, 趙簡子(?~전476). 春秋 시기 晉나라 趙氏의 영수로 본명이 趙鞅이다. 그가 병이 나 인사불성 되어 이들이 지나 깨어나서 자신이 그 사이 상제가 사는 곳에 가서 웅장한 음악을 듣고 감동했다고 했다.

28) 安豐: 安豐縣侯에 봉해졌던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王戎(234~305)을 가리키는 데, 그는 눈빛이 총명해 해를 보고도 눈부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29) “鏗鏘並奏, 能驚趙鞅之魂, 輝煥相華, 時瞬安豐之眼.”

30) 堯임금의 딸을 가리킴. 舜임금의 妃가 되었으며, 후에 湘水에 빠져 죽어 湘水의 신이 되었다. 비파를 잘 연주했는데 그 음조가 슬펐다.

며 羊祜의 덕정비를 바라보며,³¹⁾ 일단 대들보를 감도는 노래소리를 읊조리면 곧바로 가슴 가득 흐르는 눈물을 가리게 된다. 심지어 문채를 꾸미고 실질을 돌보며, 의미가 중형으로 자유롭게 치달리면, 재주는 풍운처럼 장대하고, 의미는 바다 같이 깊다.³²⁾

이는 아름다운 언어와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새로운 작품이라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라는 뜻이다.

손에 잡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趙나라 벽옥과 같아야 하고, 가지고 놀면서 만족을 모를 정도이려면 옥칩과 같아야 한다.³³⁾

이는 문장은 벽옥 같은 형식과 베개 역할 같은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궁체시의 형식적 특성인 성률 강구와 사조의 중시, 綺麗한 풍격을 전제한 이후, 시가의 내용인 질에 주의를 기울여 질이 주체가 되고 수식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文質이 서로 알맞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文質彬彬’의 문학관은 〈答李顥之書〉³⁴⁾에도 보이는데, “문장을 지을 때는 미를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³⁵⁾ 또는 “문채는 곱지만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면 어찌 〈上林賦〉와 같겠으며, 꽃은 피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장차 열매 맺지 못하는 계수나무처럼 되는 것이다.”³⁶⁾라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릉의 문학관을 통해 볼 때 서릉이 형식만 강구한 엄정적 내용 위주의 궁체시의 대표적 작가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31) 羊碑: 晉 羊祜의 덕정비. 이 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羊碑’는 관리의 덕정을 칭송하는 전고로 쓰인다.

32) “標句清新, 發言哀斷, 豈止悲聞帝瑟, 泣望羊碑, 一詠歌梁之言, 便掩盈懷之淚. 至如披文相質, 意致縱橫, 才壯風雲, 義深淵海.”

33) “握之不置, 恒如趙璧, 玩之不足, 同于玉枕.”

34) 徐陵, 吳兆宜 注, 앞의 책, 1064-8472~848쪽.

35) “文制兼美”

36) “文艷質寡, 何似上林, 華而不實, 將同桂樹.”

Ⅲ. 徐陵의 시가

여기에서는 서릉이 남긴 시가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앞에서 전제했던 궁체시의 특징을 얼마나 띠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현존하는 서릉의 시가는 악부 18수, 시 22수로, 이는 張溥가 집일한 《徐僕射集》과 吳兆宜가 주석한 《徐孝穆集箋注》가 동일하다. 본고는 欽定四庫全書 集部의 吳兆宜의 전주본인 《徐孝穆集箋註》를 저본으로 삼았다.

본 장에서는 서릉 시가 전체를 제재와 내용의 고찰을 통해 궁체시와의 관계 및 후대 시가에 대한 영향 등을 도출해내어 서릉 시가의 시가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시가의 성률 등 형식적인 부분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기존 연구 결과를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서릉의 시가는 제재가 다양하며, 다양한 제재만큼 내용 또한 다양하다. 제왕과 화답하거나 명에 따라 지은 시가 있지만 그것도 염정시 일색이 아니라 변새시, 경물시, 송별시 등도 적지 않다. 제재와 내용에 따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변새시

염정적 내용을 궁체시라고 본다면 궁체시에 포함되지 않을 ‘변새’를 제재로 한 시들이 악부에 특히 많다. 그중 〈出自薊北門行〉(계북문에서 출발하다) 전문을 보기로 한다.

계북에서 한가로이 오래도록 멀리 바라보노라니,/ 황혼 때라 마음이 유독 애수에 젖어드네./ 燕山은 오래된 사찰과 마주 보고 있으며,/ 멀리 代郡의 성루는 모습을 숨기고 있네./ 잦은 전쟁으로 다리는 항상 끊어져 있고/ 길게 얼어붙은 해자는 물도 흐르지 않네./ 하늘의 구름은 흡사 지상의 군진 같고,/ 한나라의 달이 오랑캐의 쓸쓸한 가을빛을 띠고 있네./ 물에 젖은 흙으로 함곡관을 봉해버리고,/ 새끼줄을 엮어서 양주 땅을 퐁퐁 묶어버리

고 싶네./ 평생 소원은 제비부리 턱을 한 東漢 명장 班超처럼,³⁷⁾ 오랑캐
를 막고 스스로 제후에 봉해지는 것.(薊北聊長望, 黃昏心獨愁. 燕山對古刹,
代郡隱城樓. 屢戰橋恒斷, 長冰壑不流. 天雲如地陣, 漢月帶胡秋. 漬土泥函
谷, 接繩縛涼州. 平生燕頷相, 防自得封侯.)

鮑照에게 동명의 악부가 있으며, 薊는 고대 燕나라를 가리킨다. 창작 시
기는 서풍이 북방에 억류되어 있던 시기로 보인다. 작품의 주된 감정은 변
세에 출정한 남자가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염정 위주의 궁체시
와는 거리가 멀며, 성당 변세시와 거의 같다.

〈關山月〉(관산의 달) 두 수 역시 변세시로 간주할 수 있다. 첫째 수를
보자.

관산의 십오야 보름달,/ 나그네는 秦나라 강물을 떠올리네./ 높은 누각
위의 그리움에 잠긴 여인,/ 잠 못 이루며 창가에 있네./ 성기별은 소록성 해
자에 비치고,³⁸⁾ 진을 친 듯한 구름은 기련산 위에 떠 있네./ 전쟁의 기운
이 지금 이와 같으니,/ 중군은 또 몇 년이나 더 길어질까?(關山三五月, 客
子憶秦川. 思婦高樓上, 當窗應未眠. 星旗映疎勒, 雲陣上祁連. 戰氣今如此,
從軍復幾年?)

이 악부제목은 본래 이별을 아파하는 내용인데, 이 시 역시 출정한 남
자가 고향과 아내를 그리는 마음과 전쟁을 싫어하며 평화로운 삶을 바라
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비록 악부이지만 근체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변세시로 볼 수 있다. 이백 〈關山月〉의 원본
격이자, 3,4구는 읽으면 그리움에 잠긴 나그네가 아내를 그리는 모습이 눈

37) 燕頷: 제비의 부리. 東漢 명장 班超는 관상가가 그를 두고 ‘제비부리에 호랑이
목’(燕頷虎頸) 형상으로, ‘萬里侯’에 봉해질 상이라고 말했다. 서역에 31년간
출정하여 각지의 변란을 평정하여 관직이 西域都護에 올랐으며, 定遠侯에 봉
해졌다. 그래서 후에 ‘燕頷’은 제후에 봉해질 관상을 말한다.

38) 星旗: 즉 旗星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별이 전쟁을 나타낸다고 여겼다. 疏勒:
漢나라 때 서역의 여러 나라 중의 하나로, 도성인 疏勒城은 지금의 新疆 維吾
爾自治區 疏勒縣이다.

앞에 있는 듯 하니, 杜甫의 〈月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작품 역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게, 오랑캐 병사의 침입과 난동을 썼는데 결론은 우군 병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응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한 여세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서릉의 변새시는 단순히 변방의 풍경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변새를 제재로 하고 변방 병사의 고향 및 가족을 그리워하는 감정, 또는 내지의 여인이 변방에 있는 병사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는 〈驄馬驅〉(청총마가 달리네)³⁹⁾, 〈隴頭水〉(농산 꼭대기의 물)⁴⁰⁾, 〈折楊柳〉(버들가지를 꺾으며)⁴¹⁾ 등이 있는데 모두 악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염정시

다음으로 궁체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염정을 제재로 삼은 시를 보기로 한다. 전형적인 궁체시로 볼 수 있는 작품인 〈走筆戲書應令〉(명을 받고 붓 가는 대로 장난삼아 쓰다)⁴²⁾의 내용을 보자.

39) 도성의 귀족 자제가 변경에 출정, 흉노족을 격퇴하는 일을 묘사하며,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아내와 고향에서 놀던 때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냈다.

40) 강건하고 질박한 시풍으로 내용상 변새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별의 정서를 서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별시와는 다르다. 천 길 높은 곳, 수백 장 높이로 하늘에 걸린 듯한 폭포, 여름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길이 막히며, 겨울에는 쌓인 눈이 녹지 않으며, 산길은 붙잡고 올라가기 어렵다. 농산 아래도 마찬가지로 수목들이 우거져 낮에도 어둡고 물이 세차게 흐르며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고개를 돌려 咸陽땅을 바라보아도 꿈에서나 갈 수 있을 뿐, 그래서 수심에 젖는다.

41) 이 가시는 원래 북조에서 나온 것으로, 내용은 高柳城으로 출정한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42) 본고에 인용한 작품 중 《옥대신영》에 수록된 작품의 번역문은 필자의 역서인 《옥대신영》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권혁석 역, 앞의 책.

..... 춤추던 자리는 가을이 되자 말아 두었고/ 노래하던 자리에는 무수한 먼지./ 일찍이 새것이 옛것을 대신한다 했지만/ 어찌 옛사람을 싫어하고 새사람을 맞는지./ 조각달은 꽃무늬 돛자리를 엿보듯 비추고/ 가벼운 한기는 술 안으로 스며드네./ 가을이 되자 응당 몸은 야윌 대로 야위어/ 오직 잘록한 허리만이 절로 드러나네.(..... 舞席秋來卷, 歌筵無數塵. 曾經新代故, 那惡故迎新. 片月窺花簾, 輕寒入帔巾. 秋來應瘦盡, 偏自著腰身.)

이 작품은 새여인 때문에 충애를 잃은 여인의 슬픔을 묘사했다. 이 시는 남조 후반기, 즉 梁陳 시기의 주류에 속하는 유형의 시로 제재와 내용은 동시기 기타 시인의 시와 다를 바 없으며 개성적인 작품은 아니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없는 전형적인 염정시이자, 전형적인 궁체시라고 봐도 무방한 시다. 다만 경물의 표현과 감정의 서술이 매우 완곡하며 함축적이기 때문에 궁체시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비판만 할 시는 아니다. 풍격 또한 소재와는 달리 경박하지 않고 침중하며 과장적이거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작품처럼 《옥대신영》에도 수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염정시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和王舍人送客未還閨中有望〉(왕사인의 〈손님을 전송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데 규방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시에 화답하여), 〈爲羊兗州家人答鮑鏡〉(羊 兗州刺史의 집안 기녀를 대신해 선물받은 거울에 응답한 시), 〈詠織婦〉(베 짜는 여인을 노래하다)⁴³ 등이 더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작품을 보기로 한다.

기녀는 노래와 연주 끝나자/ 거울 앞에서 홍안을 비춰보네./ 분은 닦고 머리에 꽂은 꽃 뽑아서 보관하고/ 비녀도 뽑고 난 뒤 작은 쪽을 짓네./ 꽃 등잔불은 움직이진 않지만 꺼지진 않았고/ 높다란 샹뽀문은 단혔지만 아직 잠그진 않았네./ 입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오직 보이는 건 돌아오는 달 빛뿐.(倡人歌吹罷, 對鏡覽紅顏. 拭粉留花稱, 除釵作小鬟. 綺燈停不滅, 高扉掩未關. 良人在何處? 惟見月光還.)

43) 정작 서릉 자신이 편찬한 《옥대신영》에는 〈見人織聊爲之詠〉라는 제목의 劉邈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노래하는 대상이 기녀이지만 연회가 끝나고 손님을 전송하고 다시 돌아와 밤을 함께 하겠다는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형상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궁체시에 속한다. 다만 이 작품 역시 앞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궁체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작품이다. 왜냐 하면 궁정을 중심으로 창작되고 유행하던 시가이다 보니 체재와 내용이 협착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 역시 그들의 삶, 생활을 반영한 시가로서 시가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궁정이 삶의 배경인 시인이 자신의 삶과 무관한 시, 예를 들면 전원시 같은 시를 쓴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진실성이 결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영물시 형태를 띤 염정시 〈梅花落〉이다.

사립문을 마주하고 자라는 한 그루 매화나무,/ 옛날 심은 나무에 새로
핀 꽃 떨어지네./ 제비가 주워 물고 연꽃 무늬 천정으로 돌아오고,/ 바람은
경대로 불어오네./ 기루에는 입을 원망하며 그리워하는 첩,/ 누각에 올라
홀로 서성이네./ 울먹이며 댕잇띠와 비단옷 바라보며,/ 바느질도 내팽개친
채 더는 옷을 만들지 못하네.(對戶一株梅, 新花落故栽, 燕拾還蓮井, 風吹上
鏡臺. 倡家怨思妾, 樓上獨裴回. 啼看竹葉錦, 簪⁴⁴⁾罷未能裁.)

형식상으로는 앞 예시처럼 근체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루의 한 여인이 독수공방하며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매화는 가벼이 바람에 날리고 여자는 가볍게 우수에 젖는데, 모두가 가볍고 아름답다. 서풍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함축적이며, 이미지가 아름답고 풍격이 평온하다. 전반 4구는 매화를 묘사했고, 후반 4구는 여인을 묘사했으며, 얼핏 보면 경물시에 속하는 듯 보이기도 하며, 궁체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은 초봄의 후궁에 있는 궁녀의 모습을 그린 〈春情〉이다.

44) 다른 판본에는 ‘簪’자로 되어 있으며, 뜻은 같다. 바느질하다, 꽃다 등의 뜻으로 쓰였다.

풍광은 오늘 아침 새롭게 꿈틀대는데,/ 눈 색깔은 작년 그대로 남아있네./ 얇아진 밤 시간은 새로운 절기 맞이하지만,/ 술독 앞은 그래도 밤이라 차다네./ 기이한 향료에는 가느다란 안개가 분산되어 나오고,/ 석탄불 다리미로 가벼운 비단 다림질하네./ 땃실 모양으로 옷의 띠도 재단하고,/ 매화꽃은 술안주 쟁반에 모셔져 있다네./ 봄 향기는 옷소매 속에서 나오고,/ 봄 빛은 그린 눈썹 속에 스며있네. ……(風光今巨動, 雪色故年殘. 薄夜迎新節, 當垆卻晚寒. 奇香分細霧, 石炭搗輕紈. 竹葉裁衣帶, 梅花奠酒盤. 年芳袖裏出, 春色黛中安. ……)

궁녀의 외재미를 그린 시로, 염정을 제재로 한 궁체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봄 햇볕이 문득 가져온 기쁨에 젖은 듯, 시어들이 청아하며, 수련은 특히 뛰어나다. 전체 시는 궁체시의 폐단으로 볼 수 있는 수식 위주의 浮虛한 풍격과는 거리가 멀다. 염정을 제재로 하고 있지만 시가의 진실성은 결코 잊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전체 서릉 시가의 공통된 풍격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시로는 漢 武帝 때의 衛子夫의 고사를 빌어 춤추는 기녀의 모습을 노래한 <奉和詠舞>와 陳 後主가 총애하던 張貴妃의 미모를 찬미한 <雜曲>이 있다. 특히 후자는 감정이 함축적이지 않으며 노출, 발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릉의 다른 작품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장귀비 張麗華는 568년(서릉 62세)에 입궁하여 575년(서릉 69세)에 陳叔寶의 넷째 아들을 낳았으며, 진숙보가 즉위하던 해(서릉 77세)에 서릉이 죽었으니, 6~70의 만년의 나이에, 평소 자신이 쓰던 시풍과 맞지 않은 이러한 시를 갑자기 쓸 수 있었다는 게 의문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악부 <長相思>(오래도록 그리워다) 두 수 역시 《옥대신영》 속의 대부분 작품들처럼 출정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작품을 보기로 한다.

오래도록 그리워라,/ 돌아갈 희망은 어렵네,/ 소문에 의하면 어명 받들고 阜蘭 땅에 출정하였다네./ 龍城은 머나먼 곳,/ 鴈門關은 차갑다네./ 근

심이 밀려오니 갈수록 극도로 수척해지고,/ 옷과 허리띠는 저질로 헐렁해 지네,/ 당신 걱정하는데 지금은 뵈 수 없으니,/ 누가 내 수척해진 허리 껴 안고 살펴봐 주겠는가?(長相思, 望歸難, 傳聞奉詔成臯蘭, 龍城遠, 鴈門寒, 愁來瘦轉劇, 衣帶自然寬, 念君今不見, 誰爲抱腰看.)

어명을 받고 변경으로 출정하여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남편에 대한 내지 여인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두 수 모두 변세시로도 분류할 수 있다. 서릉의 변세시는 출정한 병사의 입장에서 쓴 작품도 있고, 출정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지 여인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궁체시의 본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염정적 제재의 작품은 전체 서릉의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관점에 따라서는 변세시로 볼 수 있는 작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서릉 시가의 다양한 제재 중 일부일 뿐, 서릉의 전체 시가의 성격을 개괄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경물시

서릉의 시가 중에는 자연이나 사물, 일을 노래한 경물시 또는 영물시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모두 악부가 아닌 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먼저 王維의 자연시에 가까운 작품 〈山齋〉(산속의 재실)를 보기로 한다.

도화원 샘물은 방문객을 놀라게 하고,/ 뽕족이 솟은 학산은 찾아오는 손이 끊어지게 하네./ 다시금 바람과 구름 이는 곳에는,/ 쓸쓸히 속된 사람 하나 없네./ 산 기운이 찬데 눈이 약간 내리고,/ 돌길이라 원래 먼지도 없네./ 대나무 사잇길이라 교묘히 외부에 가려져 있고,/ 띠로 지은 재실은 새롭게 지붕을 엮었네./ 향을 사르니 도술 적은 책을 펼치고,/ 매달아 놓은 거울은 산귀신들이 싫어하네./ 섬돌 위로는 낙숫물 몇 년이나 떨어져 흘렀으며,/ 처마 앞 오동나무는 몇 번이나 봄을 지냈던가./ 구름과 놀 너머로

일단 멀리 벗어나게 되니,/ 어찌 이곳이 漢나라인지 秦나라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桃源驚往客, 鶴嶺斷來賓. 復有風雲處, 蕭條無俗人. 山寒微有雪, 石路本無塵. 竹徑防籠巧, 茅齋結構新. 燒香披道記, 懸鏡厭山神. 砌水何年溜, 檐桐幾度春. 雲霞一已絕, 寧辨漢將秦.)

이 시는 산속 재실의 한적한 모습을 묘사한 시로서, 한적시로도 분류할 수 있다. 탈속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전고 또한 모두 신선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연기와 놀이 가늘게 피어오르며, 속세와 단절된 듯한데, 대숲 사이 오솔길의 띠로 엮은 재실은 소박하고 우아한 정취를 풍기며, 바윗길에 차가운 눈 내리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여 마치 세외도원을 방불케 한다. 따라서 궁체시의 엄정적 제재와는 거리가 멀며, 唐詩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산속의 연못을 노래한 작품으로 <奉和山池>(〈산 속의 연못〉이란 시에 받들어 화답한 시), <山池應命>(명령에 따라 지은 〈산 속 연못〉) 두 수가 있는데, 모두 소강의 시 <山池>에 응대한 시다. 그중 후자를 보기로 한다.

그림 배에는 신령스런 짐승이 그려져 있고,/ 나는 듯한 배에는 오색 깃발이 걸려 있네./ 사공은 금을 새긴 상앗대를 만들고,/ 낚시하는 여인은 은으로 낚시바늘 꾸미네./ 가는 부평초 때때로 노에 걸리고,/ 나지막한 연꽃은 문득 배 안으로 들어오네./ 원숭이 울음소리로 계곡에 저녁이 온 줄 알겠고,/ 매미 오열하니 산에 가을이 온 줄 깨닫네.(畫舸圖仙獸, 飛艫挂采旂. 榜人事金槳, 釣女飾銀鈎. 細萍時帶戩, 低荷乍入舟. 猿啼知谷晚, 蟬咽覺山秋.)

세밀한 관찰에서 나올 수 있는 시이며, 함련, 경련, 미련의 대구는 절묘하여 王維의 <山居秋冥>을 떠올리게 한다. 독특한 소재인 <內園逐涼>(안뜰에서 더위를 식히다) 역시 왕유의 자연시의 흥취와 유사하다.

옛날에는 북산의 북쪽,/ 지금 나는 동해의 동쪽에 있네./ 키 큰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며,/ 떨어지는 꽃 속에 바르게 앉아 있네./ 좁은 길에는 오래도록 사람 흔적 없고,/ 띠집은 본래부터 당연히 공허하네./ 거문고 들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술을 따루어 오동나무에게 권하네.(昔有北山北, 今余東海東. 納涼高樹下, 直坐落花中. 狹徑長無迹, 茅齋本自空. 提琴就竹籥, 酌酒勸梧桐.)

이 시는 작가가 上虞⁴⁵⁾ 숲으로 있을 때인 大同 6년(540) 34세 때 지은 시다.⁴⁶⁾ ‘東海東’이란 시어는 당시 작가의 살던 지역의 위치를 나타낸다. 후대 왕유의 시 〈竹里館〉, 李白의 〈月下獨酌〉 등을 떠올리게 하는 시다. 이 외에 경물시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윗사람과 함께 하는 잔치 자리 의 은혜로움을 노래한 〈侍宴〉(윗사람을 모신 잔치)이 있다.

다음으로 사물을 노래한 영물시를 보면, 감나무를 노래한 〈詠柑〉, 햇빛을 노래한 〈詠日華〉, 눈을 노래한 〈詠雪〉 및 투계라는 독특한 제재의 〈鬪鷄〉 등이 있다. 그중에서 〈詠日華〉를 보기로 한다.

아침 해는 구비진 연못에 찬란히 비치며,/ 석양은 서쪽 산비탈에 가득하네./ 다시금 대낮의 햇빛은,/ 강물 위에 그 광채가 눈부시네./ 때때로 높은 물결을 따라 쉬기도 하고,/ 문득 가느다란 물결을 쫓아 옮겨가네./ 해가 아로새긴 대들보 위에 있으니,/ 어찌 부상 가지와 비교하겠는가?(朝暉爛曲池, 夕照滿西陂. 復有當晝景, 江上鑠光儀. 時從高浪歇, 乍逐細波移. 一在雕梁上, 詎比扶桑枝?)

이 작품은 형식상으로 근체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아침, 낮, 저녁 등 시간대별로 옮겨가는 해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물시다. 미련에서는 해가 비스듬히 궁전의 대들보 위에 걸린 듯 비추는 모습을 노래한 것인데, 부상의 뿔나무 가지가 어찌 궁전 대들보의 화려함에 미칠 수 있겠

45) 秦始皇 때 上虞縣이 설치되었으며 會稽郡에 속했다. 2013년 10월부터는 浙江省 紹興市 上虞區로 편입되었다.

46) 권혁석, 앞의 논문, 22쪽 참고.

는가 라고 하고 있다.

4. 송별시

제재상으로 볼 때 궁체시의 엄정시와는 무관한 송별시가 총 4수로, 서릉 시 전체(악부 제외 총 22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다. 그중 〈別毛永嘉〉(永嘉內史 毛喜와 작별하다)를 보기로 한다.

양모하노니 그대 품격과 풍도 엄격했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모범된 품행을 선양했네./ 아, 나는 지금 늙고 병들었으니,/ 이번 이별은 공허히 오랜 이별이 되고 말 것./ 백마는 그대 앞으로 와서 우는데,/ 황천을 내 어찌 알리오?/ 헛되이 고생하다 보검을 벗어서,/ 부질없이 농산 꼭대기 나뭇가지에 걸어두네.47) (願子厲風規, 歸來振羽儀. 嗟余今老病, 此別空長離. 白馬君來哭, 黃泉我詎知? 徒勞脫寶劍, 空挂隴頭枝.)

이 작품은 서릉이 77세 되던 해인 583년에 지은 시다. 이해 10월에 서릉이 죽었으니 서릉의 최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永嘉內史로 출임하는 毛喜를 송별하는 시다. 모희(516~587)는 자가 伯武이며 滎陽 陽武(지금의 河南城 原陽) 사람이다. 사람됨이 정직하여 직간을 과감하게 했다. 陳 宣帝 때 黃門侍郎, 中書舍人, 侍中, 散騎常侍 등을 역임했으며, 東昌縣侯에 봉해졌다. 後主 때 외직인 永嘉內史로 나갔다. 이 시를 쓸 때 서릉 역시 노쇠하였기에 전체적인 정조는 이별과 자신의 노쇠함 등이 결합되어 감상적이다. 시어는 평담하며, 감정은 진지하며, 지극한 감동을 준다. 궁체시의 특징인 綺麗함은 보이지 않는다. 깊은 비애를 표현했는데, 沈德潛은 “심한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서릉의 시집에서 쉬이 많이 볼 수 있는 작품

47) 春秋시대 뫼나라 대신 季札이 晉나라로 사신 가다가 徐國을 지날 때, 徐國 군주가 계찰이 차고 있던 보검을 마음에 들어하자, 사신 갔다가 돌아올 때 선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돌아왔을 때는 徐國 군주가 이미 죽고 없었다. 이에 계찰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보검을 그의 무덤가 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 아니다.”⁴⁸⁾라고 평했다.

다음은 소강의 명에 응하여 지은 송별시인 〈新亭送別應令〉(명령에 응하여 지은 새로 지은 정자에서 송별하다)을 보기로 한다.

바람이 이수가로 부는데, / 때마침 수레 물고 황하 다리를 나서네. / 들판
에 놓은 불로 시골 받은 새카맣고, / 강에 가을이 드니 강둑 억새풀 누렁
네. / 성벽 너머로 북소리 들리며, / 돌아가는 배 떠나는 듯 희미해지네. / 가
슴 속으로 멀리 이별하는 이를 걱정하며, / 비스듬한 시선으로 창장 강물
끝까지 바라보네. (風吹臨伊水, 時駕出河梁. 野燎村田黑, 江秋岸荻黃. 隔城
聞上鼓, 回舟隱去檣. 神襟愛[一作憂]遠別, 流睇極清漳.)

이 시는 대동 11년(548) 소강이 동궁에 있을 마지막 해에 지어진 작품이다. 즉 韋粲이 외직으로 나가 指節, 都督衡州諸軍事, 安遠將軍, 衡州刺史로 떠날 때 태자 소강이 송별하면서 지은 시에 응하여 지은 시다.⁴⁹⁾ 시간 배경은 가을이며, 극도로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回舟는 작가가 전송하는 사람이 탄 배이다. 송별의 대상은 당시 13세였던 소강의 아들 蕭大心으로, 郢州刺史로 떠날 때다. 경물 묘사를 통해 감정을 깃들인 시로, 함축적이며 깊고 완곡하게 진지한 이별의 정을 서술했다. 경미하고 감정이 부허한 궁체시와는 거리가 멀다.

다음은 궁체시와도 관련된 '徐庾體'란 문체로 서풍과 이름을 나란히 한 庾信을 송별하는 시 〈秋日別庾正員〉(가을날 庾正員과 작별하다)를 보기로 한다.

멀리 떠나는 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걱정이고, / 늘어선 말 탄 사
람들은 멈춘 말을 슬퍼하네. / 북방의 한기는 성긴 나무에 붙어닥치고, / 강
바람은 높은 물결 일으키네. / 파랑 새는 이별하여 돛은 멀어지고, / 붉은 매

48) 沈德潛, 《古詩源》 卷14, 中華書局, 2000, 331쪽: “似達愈悲, 孝穆集中不易多得.”

49) 黃穎, 앞의 논문, 57쪽.

는 작별하여 길은 멀어지네./ 오직 가을달만이./ 밤마다 황하의 다리 위로
떠오르네.(征途愁轉旆, 連騎慘停鑣. 朔氣凌疎木, 江風送上潮. 青雀離帆遠,
朱鷺別路遙. 惟有當秋月, 夜夜上河橋.)

庾正員은 유신을 가리킨다. 사서에 따르면, 유신은 “여러 번 尚書度支郎中, 通直正員郎 등으로 승진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 郢州別駕가 되었다. 얼마 후 通直散騎常侍를 겸하였으며, 東魏로 사신을 갔다.”⁵⁰⁾ 유신이 북조 동위로 사신 간 것은 大同 11년(545)이며, 통직정원랑이란 관직으로 외직인 영주별가로 나간 해는 大同 8년(542)이다. 시의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유신이 동위로 사신 가던 해인 545년 가을, 서릉의 나이 39세 때 지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吳兆宜의 주석에 의하면, 《藝文類聚》卷29〈人部藝十三·別上〉에는 張正見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정견은 당시 불과 16~17세 정도였으니 당시 33세였던 유신과 이런 교유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고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경이 적절히 교유하는 시다.

그 밖에도 제재상으로 경물시에 넣을 수도 있는 도성의 경물을 노래한 악부 〈洛陽道〉와 〈長安道〉가 각각 2수 있는데, 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옥대신영》 속의 齊梁 시기 작품들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궁체시로 봐도 무방한 작품들이다.

이상 살펴본 다양한 제재의 서릉의 시가는 결코 궁체시라는 시체로 전체 시가를 개괄할 수는 없으며, 때문에 서릉을 전형적인 궁체시인, 궁체시의 대표적 시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궁체시의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편집한 《옥대신영》 속에도 본인의 작품이 4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릉의 시가는 형식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새로운 체제, 성물의 강구라는 궁체시의 형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가를

50) 《周書》卷41〈庾信傳〉, 69쪽(총 2649쪽): “累遷尚書度支郎中、通直正員郎。出爲郢州別駕。尋兼通直散騎常侍, 聘于東魏。”

살펴보기로 한다.

서릉의 시는 형식면에 있어서 격률이 매우 완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¹⁾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역대 비평가들이 인정하였으니, 元나라 陳繹曾의 《詩譜》에서 “沈約, 吳均, 何遜, 王筠, 任昉, 陰鏗, 徐陵, 薛道衡, 江總의 시는 律詩의 원천이다”⁵²⁾라고 했다. 또 沈德潛의 《說詩晬語》에서도 “오언율시는 陰鏗, 何遜, 庾信, 徐陵이 이미 그 체제를 열었다.”⁵³⁾고 했다.

현대에 와서도 顧學頴의 〈‘律詩’作者第一人_徐陵〉⁵⁴⁾에서 서릉 시가의 성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서릉이 율시의 개창자라고 결론을 내리며, “서릉의 시는 이미 약 3분의 2 정도의 작품이 후대의 이른바 ‘율시’의 격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통계에 근거하여 陳代 시가는 격률이 이미 성숙하였는데, 서릉은 진대 시인 중에서도 의심할 바 없이 격률이 가장 우수한 시인으로서, 단지 성률로만 말한다면 그의 오언시구 중에 평측의 법에서 어긋난 게 단지 1%뿐이며, 失對는 15%, 失粘은 29%라고 했다.

서릉의 시가는 예술적 측면에서 매우 높은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궁체시인’이란 이름을 쓰는 바람에 그 예술적 성취가 줄곧 학계의 중시를 받지 못했다. 서릉의 시가는 성률을 엄격히 강구하였고, 용운이 섬세하며, 대우가 정교하고, 전고 사용이 타당하며, 聲情이 아름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⁵⁾

51) 서릉의 시가를 이전 영명체의 대표 작가인 沈約의 시와 八病이란 관점에서 그 형식 비교를 통해, 서릉에게는 八病이 하나도 없는 시가 2수(〈梅花落〉, 〈別毛水嘉〉)임에 반해 沈約은 없다는 사실 등을 통해 서릉이 형식적으로 심약에 비해 훨씬 근체시에 접근해 있다고 분석하였다. 丁功誼, 《從永明體到近體_徐陵詩歌聲律考》,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52) 丁仲祐 編訂, 《續歷代詩話》上, 藝文印書館, 1983, 767쪽: “沈約, 吳均, 何遜, 王筠, 任昉, 陰鏗, 徐陵, 薛道衡, 江總, 右諸家, 律詩之源.”

53) 丁仲祐 編訂, 《清詩話》下, 藝文印書館, 1983, 661쪽: “五言律, 陰鏗, 何遜, 庾信, 徐陵已開其體.”

54) 馬海英, 〈論規整雅致的徐陵詩〉, 《中山大學學報論叢》 제23권 제4기, 2003, 228쪽에서 재인용.

서릉의 시는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당대의 변새시, 자연시, 송별시 등의 선구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릉의 시는 염정시 일색이던 당시 시단과는 달리 내용이 다양하여 당대 시의 선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릉 시가 전체를 분석해보면 궁체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작품 역시 궁체시의 浮虛하고 綺靡한 요소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서릉을 전형적인 궁체시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그의 작품을 궁체시라고 개괄할 수 있다면 궁체시의 함의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즉, 궁정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작품으로, 비록 염정적 제재가 주류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기타 다양한 제재의 작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나름대로 남조 후기 문인들의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전대에 비해 더욱 성찰을 강구하여 근체시의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체시는 결코 일방적으로 매도, 비판되기만 하는 시가 아니라 나름대로 시가의 형식적 모색과 순수시가로로의 발전, 그리고 궁정생활을 반영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릉의 시는 오히려 궁체시 아닌 무병신음의 시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하겠다.⁵⁶⁾

IV. 결론

서릉에 대한 기존 비평가의 주된 관점은 궁체시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55) 梁成龍, 〈徐陵詩歌의審美藝術〉,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1권 제5기, 2016 참조.

56) 丁晨晨, 〈徐陵詩歌試論〉, 《今日南國》第163期, 2010, 78쪽: “齊梁의 문풍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부분 모두 綺靡, 艷麗, 軟媚, 輕浮 등의 풍격을 생각할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결코 제량 시기 모든 시인이 다 궁체시인은 아니었으며, 궁체시를 쓴 시인도 결코 완전히 기미하고 염려한 시풍에 심취해 있지는 않았다. 서릉이 바로 이러한 사람에 속한다.”

서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궁체시의 대표적인 작가라 기보다는 교화, 정치에 부속물이던 시가를 내용과 형식에서 조화를 이룬 서정 위주의 순문학으로 독립시킨 공헌을 하였던 시인이자, 근체시의 선구자라고 파악하였다.

기존 비평가에 의한 궁체시의 대표작가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쓰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소강과 문학활동을 함께 하였고, 또 그의 취지에 부응하여 궁체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옥대신영》을 편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궁체라는 명칭의 유래는 결코 서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또한 궁체시 창작의 중심인 소강과 창작활동을 함께 한 기간 또한 짧다. 아울러 사서상에 전해오는 그의 강직한 인품은 엄정적 내용의 궁체시의 대표작가와 어울리지 않으며, 그의 산문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실질을 담은 내용과 아름다운 형식을 겸중하는 ‘문질빈빈’의 문학관 역시 내용이 부허한 궁체시의 문학관으로는 맞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볼 때 남조 동시대 유티주의 시풍을 따르던 기타 작가의 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제재의 시가를 창작했다. 일부 궁체시의 전형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는 엄정적 내용의 작품도 있지만, 그 역시 감정이 진지하고 함축적이어서 시가의 진실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변새시, 경물시, 송별시 등 시가의 꽃을 피운 당대의 다양한 제재의 시가 형태가 모두 서릉의 작품에 존재한다. 형식적으로도 시가의 형식미 강구를 위해 四聲八病을 제창했던 沈約으로부터 남조의 마지막 陳代의 張正見에 이르기까지 형식미를 강구하던 여타의 시인들에 비해 율시의 형식을 가장 근접하게 갖추고 있어 당대 근체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반면에 기존의 일반적 관점을 따라 서릉의 시가를 굳이 궁체시에 포함시켜 말한다면 그것은 궁체시의 ‘新變’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형식상에 있어서 전대에 비해 더욱 성률을 강구한 시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근체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릉의 시가에는 궁체시의 내용적 특징보다는 형식적

특징을 담았으면서 내용은 비판의 초점이 되는 궁체시의 엄정적인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릉의 시가를 궁체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궁체시라고 해서 ‘색정문학’이니 ‘망국지음’이니 하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궁체시 중 진실된 감정을 담아내지 못한 형식미만 강구한 시를 분리시켜 비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릉은 전형적인 궁체시인이 아니며, 설령 서릉의 시를 궁체시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의 시는 내용과 형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당대 근체시의 선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에 서릉 시가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혁석, 〈徐陵의 생애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9집, 2020.
 徐陵 編, 권혁석 역, 《옥대신영》, 소명출판사, 2007.
 《梁書》, 《二十五史》 卷3, 上海古籍出版社, 1986.
 《周書》, 《二十五史》 卷3, 上海古籍出版社, 1986.
 《陳書》, 《二十五史》 卷3, 上海古籍出版社, 1986.
 《隋書》, 《二十五史》 卷5, 上海古籍出版社, 1986.
 丁晨晨, 〈徐陵詩歌試論〉, 《今日南國》 第163期, 2010.
 丁仲祐 編訂, 《續歷代詩話》 上, 藝文印書館, 1983.
 丁仲祐 編訂, 《清詩話》 下, 藝文印書館, 1983.
 歸青, 〈宮體界說辨—兼論宮體詩的類型〉,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2卷 第6期, 2000.
 歸青, 《南朝宮體詩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胡大雷, 《宮體詩研究》, 商務印書館, 2004.
 黃穎, 《徐陵研究》,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 江承華, 〈略論徐陵《與李那書》的文學思想〉,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1998.
- 梁成龍, 〈徐陵詩歌的審美藝術〉,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1卷 第5期, 2016.
-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1984.
- 馬海英, 〈論規整雅致的徐陵詩〉, 《中山大學學報論叢》 第23卷 第4期, 2003.
- 穆克宏, 〈徐陵論〉, 《楚雄師範學院學報》 第17卷 第2期, 2002.
- 沈德潛, 《古詩源》 卷14, 中華書局, 2000.
- 王瑤, 《中古文學史論》(《中古文學風貌》), 長安出版社, 1982.
- 徐陵, 張溥 輯, 《徐僕射集》(《漢魏六朝百三名家集》), 文津出版社, 1979.
- 徐陵, 吳兆宜 注, 《徐孝穆集箋注》(文淵閣四庫全書), 商務印書館, 1985.
-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 第1冊, 中國圖書刊行社, 1986.
- 袁千正 編, 《聞一多古典文學論著選集》, 武漢大學出版社, 1993.
- 袁世碩 主編, 《中國古代文學史(第二版)上冊》, 高等教育出版社, 2018.
- 趙道衡、沈玉成, 《南北朝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1.

< Abstract >

Until now, Xu Ling has been known as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Palace Style Poetry. This is because he worked with Xiao Gang,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Palace Style Poetry, and also compiled “Yu Tai Xin Yong” to expand the appearance of Palace Style Poetr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Xiao Gang. The name Palace Style Poetry was never originated from Xu Ling, and the period of Xiao Gang centered creation of Palace Style Poetry was also short throughout its life. In addition, his strong character, which is handed down in his biography,

does not fit with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Palace Style Poetry with amorous content. And his literary perspective, which values both the substance of the content and the beauty of the form, does not fit with Palace Style Poetry of poor content. The contents of his poems vary widely. Although there are also works of amorous content, which is typical of Palace Style Poetry, there are also poems of various contents, including Frontier Poetry, Scenery Poetry, and Farewell Poetry, it has the closest form of modern style poetry compared to other poets of its time. In conclusion, Xu Ling's poem contains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Palace Style Poetry rather tha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Palace Style Poetry, and the content is also far from the amorous content of Gungche City, which are the focus of criticism. Xu Ling is not a typical poet of Palace Style Poetry, and even if Xu Ling's poems are included in Palace Style Poetry, his poems are a pioneer of modern style poetry, which is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Xu Ling's poetry.

Key Words : 徐陵(Xu Ling), 궁체시(Palace Style Poetry), 玉臺新詠(Yu Tai Xin Yong), 蕭綱(Xiao Gang), 염정시(Amorous Content), 근체시(Modern Style Poetry)